

## 4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파송된 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증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변증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출발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강변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직분을 맡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겉으로 보면 사실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를 세운 사람도 사람들이고 또 교회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자신이 오직 그분에게 속한 것을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맡겨서, 때로 떠밀려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교회가 나를 파송했으니 사실 나는 사람들로 부터, 교회로 부터 파송된 것이

## 5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당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인 교사들에게 현혹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강변합니다. "너희 구원이 아직 불완전 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 "구원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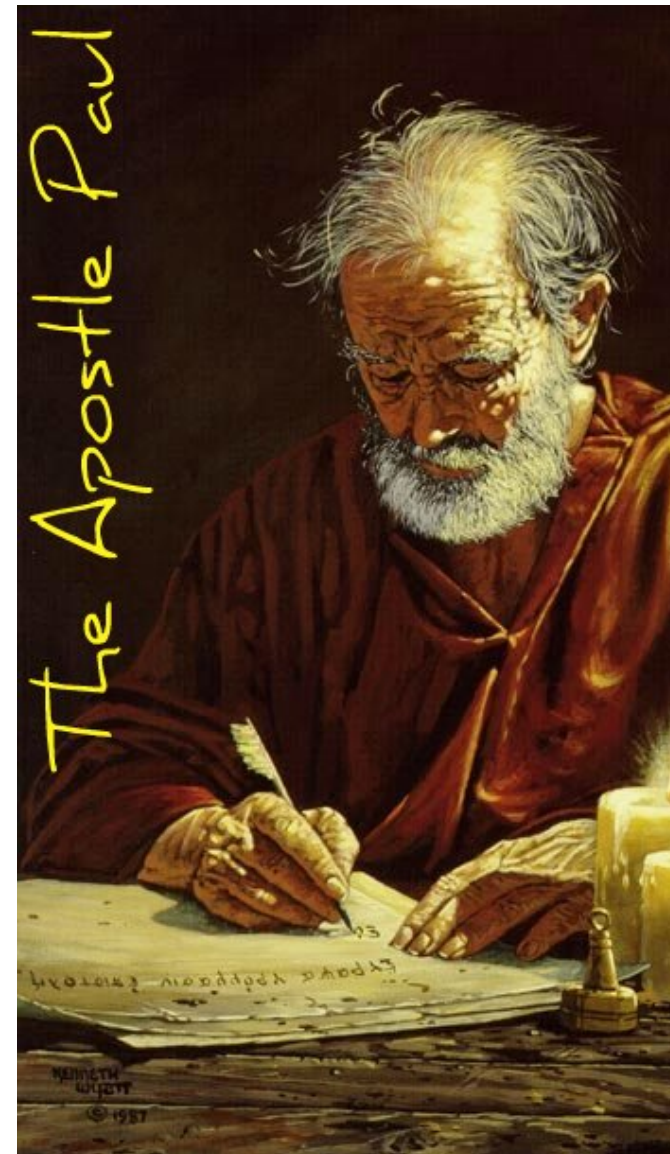
[최진영 목사]

[www.weppc.net](http://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강해(1)

## Galatians 1:1-5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7월 6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바울은 선교여행 중에 몸이 아프게 됩니다. 심한 병이 들어 갈라디아교회 지방을 지나는 동안 여행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고 생각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엄청난 애착이 있었고, 그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들로 부터 갈라디아에서 온 소식을 듣습니다. 소위, '교사들(The Teachers)'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였습니다. 이 '교사들'이 여행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들립니다. '교사들'은 본래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거짓형제들(The False Brothers)' 또는 '거짓신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거짓 형제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전했던 복음을 저버리고 새로운 복음(다른 복음)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침없이 써내려 갑니다. 바울의 분노와 실망, 때로 억울함도 들어가 있고, 복음에 대한 절박한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난 새로운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면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로 그것은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영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인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 앞에 나타난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강론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극단적으로 부정했지만, 그렇다고 구약성경이나 율법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그는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자기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일같이 읽고, 암송해왔던, 히브리성경, 오늘날의 구약성경을 폐기 처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구약성서를 인용 하면서 구약이 어떻게 예수를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설명한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말하는가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하나는 '율법주

의'이고, 다른 하나는 '무(無)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도 무율법주의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설파합니다.

## 갈 1:1-5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글은 편지의 인사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전체 서신의 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당시 편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인 "나 바울이 너희를 편지로 문안하노라",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 수식어구를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후서>나 <로마서>, <디모데전후서> 등에서도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 (1절)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될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될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당시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왔던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은 예수와 직접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다르고, 예수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예수에게 파송 받은 바도 없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움 받은 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자를 파송을 하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를 파송했듯이 이 교회들도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교회의 파송받은 자'로서의 위치가 견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